

‘그라운드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K리그 역사가 된다

프로축구연맹, 2020 K리그 등록선수 785명 분석

4년 연속 최고령...최연소 신인 심민용과 22세 차이 ‘최고 베테랑 팀’ 전북...‘K리거 평균’ 25.7세·181.2cm

프로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41·전북)이 올해도 K리그의 최고령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 자료에 따르면 1979년생인 이동국은 올해 K리그1·2 전체 등록 선수 785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선수인 경남 FC의 신인 수비수 심민용(2001년 12월생)과는 22살 차이가 난다. 이동국은 2017년부터 K리그 최고참이었다. 2017년에는 같은 1979년생인 김용대, 현영민, 정성훈도 뛰었는데, 이동국이 4월생으로 가장 생일이 빨랐다. 2018시즌까진 김용대가 함께 건재했으나 지난해부터 이동국이 리그에서 유일한 1970년대 출생 선수가 됐다. K리그 필드 플레이어 최고령 출전 기록(지난해 12월 1일 기준 40세 7개월 22일)을 보유한 이동국은 이번 시즌 한 경기 출전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한다. 전체 최고령 출전 기록에서 현재 이동국을 앞선 선수는 김병지(45세 5개월), 신의손(44세 7개월), 최은성(43세 3개월)뿐인데, 모두 지금은 은퇴한 골키퍼다. 올해 리그에서 가장 키가 큰 선수는 199cm인 전남 드래곤즈의 노르웨이 출신 공격수 줄리안이다. 줄리안은 2012-2013년 수원FC 소속이던 보그단(202cm)에 이어

‘역대 신장 2위’에 해당한다. 최단신은 160cm인 강원 FC의 미드필더 김현욱이다. 2017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한 김현욱은 2009-2010년 대구 FC에서 뛰었던 레오와 더불어 프로축구 ‘역대 최단신’이기도 하다. 올해 K리그의 평균 나이는 25.7세, 키는 181.2cm, 체중은 74.3kg으로 집계됐다. 최근 5시즌 중 유일하게 26세를 밑돌았고, 키는 181cm를 넘었다. 1부리그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팀은 이동국의 소속팀인 전북 현대(27.3세)이며, ‘최연소 팀’은 22세 이하 선수(19명)가 가장 많은 대구(23.8세)다. 입단 시기 기준으로 봐도 전북은 평균 2014년 5월로 연차가 가장 높았고, 대구는 2017년 5월로 가장 낮았다. 키는 상주 상무와 울산 현대가 각각 평균 182.6cm로 가장 컸고, 성남 FC는 180cm로 가장 작았다. 2부리그에서는 경남이 27.1세, 충남 아산이 24.7세로 각각 최고령·최연소 팀으로 나타났다. 최장신 팀은 평균 182.1cm인 안산 그리너스, 최단신은 180.5cm인 수원 FC였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각 팀의 선수 변동 폭도 컸다. 1부리그 팀들은 평균 20.1명을 내보내고 13.8명을 영입했다. 지난 시즌 준우승한 뒤 절치부심한 울산이 29명을 내보내고 18명을



전북 현대 이동국이 2020 K리그 1·2 전체 785명의 등록 선수 가운데 최고령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 필드 플레이어 최고령 출전 기록(지난해 12월 1일 기준 40세 7개월 22일)을 보유한 이동국은 이번 시즌 한 경기 출전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입, 나가고 들어온 선수 모두 1부 리그에서 가장 많았다. 2부리그 팀들은 나간 선수가 평균 22.1명, 새로 들어간 선수가 18.8

명이었다. 안산이 24명을 내보내고 33명을 영입해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KIA 자체 연습경기 SPOTV 생중계

7·19일 2경기...나머지 경기는 KIA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되는 자체 연습경기 생중계를 이어간다. KIA는 7일과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되는 자체 연습경기 2경기를 스포티비(SPO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모바일 및 PC 시청은 온라인 스포츠 플랫폼 스포티비 나우(SPOTV NOW)에서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KIA는 이밖에 오는 11일, 13일, 15일, 17일 예정된 연습경기 4경기도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타이거즈 T



V’를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EPL, 6월 ‘무관중 재개’ 가능성

英 미러스포츠 “EPL, 영국 정부와 잠정적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중단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영국 정부와 합의로 6월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미러스포츠는 6일 프리미어리그를 6월 재개하는 방향으로 EPL과 영국 정부의 논의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리그가 재개되면 무관중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등 정부의 엄격한 통제 속에 잔여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미러스포츠는 “정부는 앞으로 수 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 EPL과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PL과 정부 간 논의가 진전을 이루자 EPL은 20개 구단은 지난 금요일 긴급회의를 열어 잔여 일정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경기장에 올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중계 채널을 늘려 보다 많은 경기가 생중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스키아스포츠 등 중계권을 가진 기존 유료 가입 채널뿐 아니라 무료로 볼 수 있는 공공과 채널을 통해서도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구단은 5월 중 대중으로부터 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영국 정부와 6월 중 2019-2020시즌 재개를 논의했다. 이에 5월 중 훈련 캠프를 열고 6월에 무관중 경기로 잔여 경기를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립된 곳에서 훈련 캠프를 열어 시즌 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EPL이 발표한 리그 중단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그러나 영국 전역에서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5월 리그 재개는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EPL 구단들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6월 재개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올해 지방체육진흥사업 국비 지원

역대 최대 7억3천여만원 확보

광주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2020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국비 예산 7억3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광주시체육회가 지원받은 국비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올해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광주시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각종 경기(훈련)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육상 등 30개 종목의 각 팀에 지원, 열악한 지방체육 활성화와 훈련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평소보다 훈련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체육계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선수들도 포기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중 기자

메시 이어 판데이크까지...‘월드클래스 손·흥·민’

‘최고 수비수’가 뽑은 ‘EPL 드림팀’에 선정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 이어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손꼽히는 피르밀 판데이크(리버풀)도 손흥민(토트넘)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정상급 선수로 손꼽았다. 판데이크는 6월 리버풀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구성된 ‘파이브 어 사이드 팀’(five-a-side team)의 명단을 공개했다. ‘파이브 어 사이드 팀’은 5인제 미니 축구팀을 말하는데 포지션별(골키퍼 1명·수비수 1명·미드필더 2명·공격수 1명)로 최고의 선수들을 일컫는다. 판데이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메이션을 기준으로 골키퍼 에데르송(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에드리크 라포르트(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손흥민과 케빈 더브라워너(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피에르 에드리크 오바메양(아스널)으로 구성했다. 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가 무려 3명이나 포함됐다. 판데이크는 손흥민에 대해 “빠르고 강하다”라며 “손흥민은 수비수에게 그라운드에서 지옥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흥민은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손흥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연기된 PGA챔피언십, 8월 개최 ‘가닥’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PGA챔피언십이 8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PGA챔피언십을 주관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애초 예정된 5월15-17일 대신 8월6-9일에 PGA챔피언십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6일 보도했다. 대회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TPC 하딩파크 그라운드다. PGA챔피언십은 PGA투어가 시즌을 압축하면서 8월에 시즌을 마치도록 일정을 개편하기 전까지는 4개 메이저대

회 가운데 맨 마지막인 8월에 열렸기에 8월 초 개최는 낯설지 않다. 마스터스가 10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PGA챔피언십 8월 개최가 성사되면 작년과 달리 두 대회 개최 순서가 뒤집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8월 개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월에도 대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8월 개막 예정인 미국 프로풋볼(NFL) 경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